

2024

영재키움 프로젝트 후기 공모전

내가 만난 영재키움 프로젝트

Growing UP Gifted Project

최우수상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간다
“영재키움 프로젝트”
이원욱 강림초등학교 | 교사

우수상

키움 운전사
하재설 목계초등학교 청암분교장 | 교사

영재키움으로 으쌰으쌰!
꿈을 향해 성큼 다가서다.
사공정일 율하초등학교 | 교사

장려상

멘토 멘티를 함께 성장시켜 준
영재키움
이원석 노전초등학교 | 교사

조금 특별했던 멘티 선발 과정과
재능을 찾는 여정
강석기 남산초등학교 | 교사

가정과 일, 워라벨을 가져다준
선물같은 ‘영재키움 프로젝트’
이정은 만송초등학교 | 교사

(육아휴직 후)
복지교사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영재키움 프로젝트
윤경선 대동여자중학교 | 교사

최우수상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한 나의 꿈
‘건강한 지구,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김준현 한솔고등학교

우수상

미래 지구를 지킬 멋진
발명가의 꿈
이상진 금산초등학교

익숙함에서 찾은 새로움
송연우 충주대소원중학교

장려상

선물이 되어준
영재키움 프로젝트
김은유 단성초등학교

영재키움 프로젝트 선생님들과
함께 풍덩! 과학 속으로
나소연 내포초등학교

나의 꿈으로 다가가는 징검다리,
영재키움 프로젝트
이채원 유성중학교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서 성장’해
나가는 영재키움 이야기
황원준 불당중학교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다 “영재키움 프로젝트”



호준(가명)이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오래된 희망사항이었다. 호준이라는 이름은 학교로 부임했던 첫해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즐기차게 들었던 이름이었다. 아이는 전국창의력경진대회나 교내 발명품 대회에서 상을 받는다 하면, 학교 잔반 문제를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한 학교 방송에도 등장했다. 그야말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소유자로 다방면에서 끼를 뽐내는 아이였다.

호준이의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명석한 두뇌로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학생”이라고 표현하셨다. 저학년 때 호준이를 맡으셨던 또 다른 선생님은 “끈기가 강하고 친구를 잘 배려하는 아이인데, 리더십도 강해 반장 역할도 제대로 해낸 학생”으로 기억했다. 덧붙여, 그 선생

님은 호준이가 처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지만, 더 많은 지원과 뒷받침이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원에서 영재교육 공부를 한창 하던 시기, 간간이 들려오는 호준이에 관한 아름다운(?) 소문들은 흥미롭고 신기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재수업 교수님의 수업에서 ‘누가 과연 영재인가’에 대해 토의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최근의 여러 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영재의 특성들을 호준이가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창의성, 리더십, 끈기, 과제집착력 까지. 호준이의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의 소망을 품게 했다. “언젠가는 꼭 호준이와 (영재키움)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서 아이가 가진 잠재성이 더욱 발현되도록 도와주리라.” 간절함 덕분이었는지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해가 바뀌고 6학년 담임과 학생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한 공간에서 일상을 함께 하며 호준이의 영재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재능은 물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능력이 훨씬 더 큰 아이였다.

얼마 뒤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호준이의 유일한 보호자인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할머니는 “장난기 많은 철부지 손자인데 영재가 맞느냐”라고 하시며 웃으셨다. 하지만, 그간 지켜봐왔던 호준이의 모습과 함께, 아직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이가 가진 잠재적인 재능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누구보다 더 우리를 응원해 주는 지원자가 되셨다. 그 날 이후로 호준이는 나와 일대일로 만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고맙게도 내가 가진 열정만큼이나 아이에게는 큰 동기와 패기가 느껴졌다. 호준이가 꿈

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그 과정에서 얻는 보람은 멘토, 멘티 모두에게 달콤하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호준이는 전보다 더 밝아졌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꿈에 한층 더 가까이 가는 본인의 모습에 뿌듯함과 희열을 느낀 모양이다. 동시에, 멘토교사로서 ‘타고난 재능에 비해 이것들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전하게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점차 명확해졌다. 이 생각은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함께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꿈을 가진 아이가 출발선 상의 차이로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지장을 받는 것은 누가봐도 안타까운 일이다.

호준이는 하나의 계획된 활동을 최대한 기발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하려고 애썼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하며 놀라기도 했다. 창의적인 특성은 영재키움 프로젝트 활동에 알맞았고, 활동을 거듭할수록 학급 운영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등 다양한 장면에서 호준이의 창의성과 노력이 더욱 돋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는 과제집착력이 여러 재능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학습과제를 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보면 과제 기한을 넘길 때도 많았는데, 그만큼 양질의 결과물로 보답했다.

다양한 도전에도 거리낌 없는 아이는 다른 한편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함을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과제 진행 중에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물론, 의욕이

큰 만큼 당초 자신의 계획에서 벗어난 상황과 맞닥뜨리면 좌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역할은 멘토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이었다.

호준이의 꿈은 로봇 개발자이다. 특히나 로봇산업은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여러 기술의 복합체라 불린다. 호준이에게 이를 알려주고, 로봇과 관련한 일을 하려면, 여러 전문 지식을 섭렵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결국, 우리는 과학관, 창의융합교육원 등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과학적 이론이 담긴 전시물을 체험했다. 시야가 넓어지니 궁금한 점도 추가적으로 생겼는데 학교 후나 아침 시간을 활용해 함께 공부해나갔다.

배우고자 하는 끈기와 꿈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던 아이는 이내 궁금한 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까지 갔다. 원격으로 만나는 강사 선생님들도 한몫했다. 아이는 이미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학습할 준비가 다 되어있었고 나는 단지, 환경만 잘 갖추어주면 되는 것이었다.

영재키움 3년 차가 된 올해, 호준이는 멘토인 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성장했다. 그 소중한 변화를 이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과 관련해 호준이가 단계 단계의 세부 목표를 세운 것이다. 요즘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러 가거나, 관심이 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꿈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멘토링이 된 셈이다.

티베트의 옛 속담에 ‘교육이 없는 아이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이야말로 아이가 꿈꾸는 미래와 이상을 현실로 만

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아이에게 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평등한 사회이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과의 평등보다 과정의 평등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의 기회 면에서 보면, 아이 한 명, 한 명이 가진 재능을 맞춤형으로 발굴하고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아이가 출발지점의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는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란다.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멘토로서 호준이의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여러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재설 목계초등학교청암분교장 1교사

키움 운전자

하재설 목계초등학교청암분교장 1교사 -----○

키움 운전자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대학 신입생 시절,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을 듣던 중 교수님께서 던진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번쩍 손을 들어 “다마스를 한 대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100여 명의 학부생들이 한 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물으시기에 친구들을 태워 여행을 가고 싶다고 대답하니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졌다.

‘과돌이’라 불렸던 학과 사무실 아르바이트와 KTX 오송역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은 끝에, 결국 다마스는 아니지만 문짝이 살짝 구겨진 티코 중고를 싸게 샀다. 주중에는 과 학생회의 응급 차량으로,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고향으로 가는 친구들의 귀가 차량으로, 방학에는 농어촌 교육활동의 선발대 차량으로 활용했다. 대학 시절에도 군 생활 중에도 무사고로 운전 실력을 키웠고, 지금도



최근 1년간 보험사 기록으로 100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내가 영재키움 교사가 되면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해졌다. 하동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며 아이들을 체험 활동 장소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종합보험도 최고 보장으로 들고 운전자보험도 가입했다.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오늘도 안전운전 파이팅!’을 외치며 출발한다.

작년까지 멘티학생이 한 명이어서, 멀리서 열리는 ‘멘토링데이’나 ‘문화체험데이’에 참여하기보다는 11년 동안 지역교육청 발명 영재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자체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했다. 그때는 문화 체험 활동이나 과학관 견학뿐만 아니라 학생을 학교로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길도 멀다고 생각했다.

이번 해는 특별히 더 멘토교사의 운전 실력이 빛나야 했다. 진주에 사는 내가 하동과 산청에 살고 있는 학생 두 명의 멘토가 되었기 때문이다. 산청에 사는 A군은 무척 똑똑하다. 영재교육원에도 다니고, 집에서 혼자 선행학습도 하며 예리한 질문을 자주 한다. 일 년이 지나면 멀리서 다니던 교사보다는 가까이 있는 산청 멘토교사에게 배정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활력 넘치는 ESTP형 영재인 하동에 사는 B군까지 함께 배정되었다.

영재를 두 명이나 맡게 되니, 기름값을 아끼지 말고 멀리 전문을 넓힐 수 있는 장소로 가보자는 마음을 그대로 계획서에 담았다. 그 결과 집에서 산청까지 27km, 산청에서 하동까지 28km, 하동에서 부산 KBS홀까지 151km, 하동에서 대구과학관까지 142km... 이렇게 멘토 수업을 위해 진주, 창원, 김해, 대구, 부산 등 장거리 운행이 일상이 되었다.

첫 활동은 함안을 찾아 뮤지컬 ‘놀부전’을 관람하고, 근처 부대 복지회관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첫 만남인 만큼, 선행학습으로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고 머리를 덜 쓰는 활동으로 시작했다. 함안문화회관을 찾은 이유는, 진주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10만 원에 판매할 공연 티켓을 2~3만 원에 살 수 있고, 모든 좌석이 VIP석이라 해도 될 만큼 무대에서 가까워 실감 나게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회관을 찾은 까닭도 같은 맥락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질 좋고 맛있는 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학교에서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예술꽃 씨앗 학교와 새싹학교의 담당자로 일했던 경험과, 6년 4개월간의 군 생활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니, 무엇이든 경험하면 다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날은 깔끔하게 306km로 시작했다.

두 번째 만남은 8월 넷째 주말, 진주에서 수중 드론으로 남강 속의 생태를 조사했다. 전날 학교에서 수중 드론 조종법을 익히고, 민물고기 도감에서 남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보며 민물고기의 특징까지 확인하고 진주로 나왔다.

젖은 비로 인해 남강 댐에서 초당 200t 이상 방류를 계속해서 수상 안전 체험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 많았지만, 이날은 하늘이 도와주었다. 아직 흙탕물인 남강에 카약을 띄우고 유속이 느린 곳으로 이동하여 물속을 관찰하다가, 평소 누치 반 물 반인 곳에서 간혹 블루길들만 만날 수 있었지만 대단한 발견이었다. 아쉽게도 A군이 행사로 참여하지 못해, 180km 주행으로 마무리했다.

세 번째 활동은 9월 둘째 주, 부산 KBS홀에서 콘서트 관람과 김해박물관 견학이었다. 진주에서 하동으로, 하동에서 산청으로, 산청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김해로... 매번 이런 식이다. 아침 6시 30분에 하동으로 출발하여 7시 30분 B군 탑승, 8시 15분 A군 탑승, 10시 15분 KBS홀 도착 후 견학 및 점심 식사, 1시 콘서트 관람, 4시 30분 김해박물관, 5시 50분 저녁 식사, 6시 50분 산청, 7시 30분 하동, 8시 20분 진주, 처음 콘서트를 본다는, 돼지국밥이 정말 맛있다는 우리 영재들의 말 한마디에 13시간, 437km의 여독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평소 체감하지 못한 말의 힘을 몸소 느껴본 날이었다.

네 번째 활동은 '전문가멘토링데이'로 김해 문화센터에서 금속공예 작품을 만들어 보고, 김해문화회관에서 '마을을 지켜라!' 연극 공연을 관람했다. 그런데 김해 지역에 이틀 동안 428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센터 사정으로 공방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오후에 개는 일기예보를 보고 출발했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내렸다.

그야말로 악천후 속이었지만 자동차 안은 영재들의 끝말잇기, 기후 변화와 환경 관련 이야기 등으로 즐거웠고, 411km를 달린 교사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뻐다.

일곱 번째 활동은 국립대구과학관 견학이었다. 이번 역시 아이들이 처음 가는 곳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전시관 및 체험 시설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후 대구광역시로 출발했다.

영재 두 명이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활동 장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둘이 의기투합해 좌충우돌하며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예약된 체험실에 들여보내고 나서야 실내 통로에 비치된 책을 하나 들고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며 잠시 쉴 수 있었다. 관광버스 기

사의 일상이 이렇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날은 372km를 운행했다.

이를 합해 11월까지 열세 번의 활동 거리는 약 3,150km가 되었다. 아이들은 키도 쑥 자랐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교사는 살이 찌고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이제 남은 12월에 학교에서 두 번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면, 이번 한 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아 좋은 추억 하나를 얻을 것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야간 학교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중고 카니발을 샀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래 운전한다. 그 순간 집이나 활동 장소로 가는 동안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 겪는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배움의 일부가 되고, 선생님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는 아이들로부터 내가 교사로서 바른길을 가고 있음을 성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멘토교사이자 운전사이다. 이름하여 '키움 운전자', 이 길을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고 싶다.



사공정일 율하초등학교 | 교사

영재키움으로 으쌰으쌰!
꿈을 향해 성큼 다가서다.

사공정일 율하초등학교 | 교사

영재키움으로 으쌰으쌰!
꿈을 향해 성큼 다가서다.



나의 멘티, 헤림이

2021년 영재키움 두 번째 학생 헤림이를 만났다. 영재키움 수기가 아니라 나의 멘티 헤림이 자랑이 될 것 같아 먼저 걱정이 된다. 헤림이는 내가 지켜보고 추천한 학생이 아닌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이런 학생이라면 얼마나 영재에 열의가 있는 학생일까 기대가 되면서도 멘토 제의를 받았을 때 차도 없는 내가 다른 학교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괜찮을까 고민했지만 이 고민이 아까운 시간이었다. 2021년도는 코로나가 심했던 해라 전화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화로도 그 총명함이 느껴졌다. 지금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던 4학년 꼬마 헤림이가 어느 덧 교내 과학상을 휩쓸고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중1 학생이 되어 꿈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두근두근, 첫 해

처음 신세계 아쿠아리움에 갔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서 과학과 관련되면서도 처음 만나는 자리만큼 딱딱하고 어색하지 않은 곳을 찾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 봐 아쉽기는 했지만 함께 동물을 만지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에 와서 첫 해 활동시간이 62시간인 것을 보니 코로나시기였음에도 부지런히 활동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과학 책과 과학 키트를 함께 사고, 코로나로 인해 같이 줌을 켜고 수업한 시간들이 많았다. 줌으로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헤림이는 집중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었고 과학을 좋아하는 나였지만 나도 모르던 과학실험과 키트를 헤림이 덕분에 알게 되었다. 오호불, 인체모형, 결정나무, 인공 눈, 포화용액 수정 키우기 등등 신기하고 재미있는 실험과 만들기들로 둘만의 영재키움이었다.

어머니와 나의 협력으로 경북대 영재원 합격

사실 헤림이는 한 번의 아픔이 있었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5학년 과정에 지원하여 탈락을 한 것이었다. 내가 동부영재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헤림이 정도면 당연히 붙을 줄 알았고 붙을 것이라고 응원도 해주었는데 떨어져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고민도 되고 속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헤림이는 씩씩하게 영재원은 못갔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영재학급에 열심히 다니고 대학영재 선수과정이라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과학고 탐방, 멘토링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했다. 시간이 지나 영재원 지원 시즌이 다시 왔지만 5학년 과정의 영재원 탈락이 헤림이가 상처가 있었는지 다음해에는 지원하지 않았

다. 작년에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다. “헤림이 경북대영재원 한 번 내보면 좋겠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 말씀 좀 해봐주시겠어요?” 나의 대답은 당연히 “네, 어머니. 제가 이야기 잘 해볼게요. 헤림이 수학과학 좋아해서 하면 도움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헤림이에게 진심을 담아 달콤한 응원을 하며 지원하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다행히 헤림이가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해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주었다. 경북대 영재원 합격 발표날, 어머니께서 연락주셨는데 정말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헤림이는 워낙 잘하는 학생이지만 혹시나 떨어진다면 또 나로 인해 두 번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해서 속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24년 헤림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또한 영재원 학생으로 연구한다고 너무나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어머니께서 합격증서, 개강식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흐뭇하다. 대구영재키움 선생님들께도 제 멘티 자랑 좀 해도 될까요? 하며 합격소식과 그 간 과학상 받은 것을 단체채팅방에 올려 축하를 받았다. 이제는 영재원으로 인해 영재키움 행사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아쉬울 정도다. “PH에 따른 세포의 변화” 헤림이가 올해 연구한 주제인데 요즘 중1은 이렇게까지 잘하는가 놀라고 있는데 얼마 전 사사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바쁘고 힘들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분야 연구에 진심을 다하는 헤림이 정말 꿈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볍게 내 준 과제, 무겁게 제출하는 헤림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헤림이었다. 그래서 인체모형을 함께 공부해보고자 했다. 인체모형은 과학실에 있는 것 만큼 큰 것도 아니고 집에 두면 무서울 것 같아 걱정했지만 헤림이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구석구석 잘 관찰하였다. 헤림이와 같이 몸의 기관에 대해 탐구하긴 했지만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인체 각 기관에 대한 이름과 기능을 적어보라고 하였다. 가볍게 내 준 과제였다. 하지만 헤림이는 무겁게 과제를 제출했다. 또박또박 빼곡하게 몸의 기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적은 종이를 사진으로 보내주었다. 내가 너무 고생시킨 것은 아닌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이 후에도 독서감상문을 쓰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느낀 소감을 적도록 과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항상 기대 이상으로 무겁게 과제를 제출하였다. 이제는 과제를 내는 것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내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키움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는 자세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멘토로서 뿌듯한 순간이다.

과학과 환경에 진심인 헤림이

헤림이는 과학과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과학은 초등학교 때는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를 보여주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중학교에 가니 실력이 바로 입증되었다. 첫 해 해보고 싶은 키트가 있는지 물으니 오호볼이라고 해서 오호볼은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했었는데 나중에 어디가고 싶은지 물으니 제로웨이트 상점에 가보고 싶다고 하였다. 당연히 가고 싶은 곳이 놀이동산이나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장소일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대나무칫솔 사고 싶다고 하는 헤림이를 보고 잠시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었지만 재차 물어도 같은 대답이었다.

나의 교직원관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영재키움

영재키움을 하면서 열의가 넘치고 재능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 그 도움으로 영재키움 유공교원 표창, 연구회 회장, 보도자료

작성, 교원 대상 강의를 하며 스스로 능력을 함양하며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고, 헤림이를 지도하면서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말을 스스로 많이 해봤던 것 같다. 수 많은 학생들을 보지만 정말 ‘요즘 애들’ 같아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실히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학생이 잘 없는데 영재키움에서 만난 헤림이는 달랐다. 햄버거도 잘 못먹고 집밥을 좋아하고 환경과 과학에 진심인 헤림이를 보면서 나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영재키움으로 만난 좋은 선생님, 좋은 멘티도 아직도 교직이 밝고 내가 할 일이 많구나 느끼게 된다. 영재키움 화이팅!

멘토 멘티를 함께 성장시켜 준 영재키움



교사로서의 생활을 십 여년 해오면서 그동안 수 많은 학생의 담임을 맡았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담임교사로서 참 많은 에피소드들을 겪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 들 중 안타까운 몇 가지는 학생들의 불우한 가정사, 그리고 이로인한 학교생활의 문제, 교우관계문제 등이었다.

특히, 충분한 재능이나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생의 주변 환경적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경우도 많이 보왔다.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지 누군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이 친구의 재능이나 포부는 영원히 드러날 수 없는 미완성의 미술작품으로만 남게 될 것 같았다. 즉,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을 갖춘 학생들임에도 그러한 영재성 계발의 환경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제대로된 날개도 못 펴보고 (장래) 큰 꿈을 접는 경우도 너무 안타깝게 지켜 보았다.

그러던 중 카이스트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접하고, 나 자신이 직접 멘토가 되어 학생들의 잠재성을 찾아주는 동시에, 경제적 궁핍이나 사회적 진입 장벽을 허물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영재키움은 말 그대로 멘티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일깨워 주고 무엇보다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 또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상학생을 담임교사의 입장으로 만난 것 부터가 행운이었다. 이것이 내가 진정한 의미의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발을 들여놓은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올해로 햇수로 3년째이지만 지난 2년 여 동안의 멘토 역할을 되돌아 보면, 나 자신에게 이렇다 할 영재키움 성과를 찾지 못한 어려웠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 3월 초, 멘티학생을 담임교사로서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 이 학생에게 멘토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생의 영재성을 발굴하기 보다는 멘티학생의 자신감 회복이 주 목적이었다. ‘멘토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멘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자긍심 기르기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대학원 교수님과도 상담한 끝에 멘티에게 다양한 직업 및 문화체험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보게 하자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멘티가 속한 지역 학생 동아리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들간의 소통의 기회야 말로 위축되어 있는 멘티학생의 꿈과 자신감을 깨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이다. 마침 멘티와 멘토교사의 지역 모임 기회가 있었고 이 모임을 계기로 학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직업 진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지역 멘토교사들은 나처럼 다양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멘티학생이 한 층 더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을 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 나 또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기에 끈끈한 동지애(?)로 멘토교사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씩 해결 해 나갔다. 이것이 영재키움 교사 지역 모임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이렇게 첫발을 내딛으니,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멘티학생과 멘토 역할을 하는 나는 한 층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나 또한 교사로서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학생들의 조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여러 멘토 경험을 쌓은 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멘티학생이 교탁에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미처 찾지 못한 저의 재능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 동안 십수년의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 뭉클함이 느껴졌다. 진심이 가득한 이런 감사함의 표현에 멘토로서 과분함을 느꼈고 과연 이러한 감사함을 들을 정도로 내가 노력했나 하는 의문도 들었다.

멘토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학습적 지원은 앞서 말한 의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자연스럽게 그 답을 찾게 하였다. 지역 모임에서 멘티학생-멘토교사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보고 그 것에 초점을 두고 다음 멘토 멘티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수준높은 영재 발굴 검사나 심화 수업 보다는 멘티학생이 평소 생각한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수업을 해보았다. 그 예로써 진행한 수업이 IT기반 지식 정보화 수업이었다. 평소 코딩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멘티학생은 코딩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주는 것이 내 역할 이었다. 관련 책도 선물하고 코딩 관련 보드게임을 해 보면서 어느 덧 나 자신 또한 코딩 전문가가 되게끔 길을 인도해 주었다. 멘티학생은 코딩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는 말을 포트폴리오로 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영재키움 활동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스포츠 체험이었다. 뉴 스포츠 활동인 스포츠 스택스 컵쌓기는 멘티학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고 다양한 직업 체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었다. 이같은 활동을 하면서 멘티학생은 뉴스포츠 활동 외에도 생소한 분야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관련 영상도 찾아보면서 심층적으로 공부 할 수 있었다.

영재키움의 묘미는 멘토교사와 멘티학생의 동반성장이 아닐까 한다. 멘티학생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경제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해 주고 미래 꿈을 찾는 토대를 갖춰 주는 데에 조력하다 보니, 어느 덧 멘토교사인 나 또한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십 여년을 학생의 조력자로서 과연 어떠한 교사가 될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길을 헤매던 나에게 이정표를 제공해 준 셈이다.

매미가 울기시작하는 7월의 초여름날, 멘티학생이 나에게 다가와 했던말이 기억난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영재키움 체험을 아마 못했을 것이예요, 우리 멘토-답임 선생님 최고예요”라고 말

한 것이다. 그 땀 “응 그래, 고마워” 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다. “OO아, 나 또한 너 덕분에 교사로서의 삶을 되돌아 선생님이 찾아야 할 답을 찾게 되어 기쁘단다. 내가 오히려 고마워”.

멘토교사로서의 일년여 생활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그동안 멘토 학생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의 성장에 작은 밑거름을 준 거 같아 무엇보다 뿌듯하고 기쁘다. 또한 그동안의 여러 (온·오프라인)협업시간을 통해 나에게 다양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지역 멘토교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내년에는 좀 더 성장한 나를 통해 다른 멘토교사들에게도 희망과 도움을 주고 싶다.

끝으로,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는 카이스트와, 지역별 연계 대학 관계자, 이 시간에도 전국 다양한 곳에서 멘티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 중이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진심을 담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영재키움을 통해 함께 성장한 멘티학생들과 멘토교사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에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조금 특별했던 멘티 선발 과정과 재능을 찾는 여정



I.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티 선발에 대한 조금은 독특한 접근

영재키움 프로젝트에서 멘토 활동을 한지 3년째이다. 첫 2년은 학교, 지역이 전혀 다른 학생의 멘토를 맡아 활동하였다. 그 학생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었고 아버지가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직접 신청을 하신 경우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주말, 주중 저녁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해당 학생의 체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2년 동안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해당 학생을 데리고 대부분 참여하였다. 그 학생은 지역영재교육원에 합격하는 등 큰 성장을 거두었고, 더 이상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동행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줄이 바빠져 올해에는 새로운 멘티를 물색해야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본인 나름대로의 운영 철칙이 있었다. ①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②꼭 필요

한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올해 멘토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다짐했었다.

영재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들 중에는 지능은 좋지만 인성적으로 바르지 못한 아이도 있고, 힘든 경제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크다보니 사회에 대한 반항심과 피해의식만 높아져 고마움을 모르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의 성장에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는 하나 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님을 우리는 많은 위인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첫째 인성을, 둘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멘티를 물색하게 되었다.

본교는 시설(고아원)에서 등교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라 가정 상황이 크게 좋지는 못했다. 올해(2024) 6학년 담임을 맡아서 해당 학반 학생의 멘토가 되면 효율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6학년 학생 중에 멘티를 물색했다.

▶ 이전 학년도 담임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

왜?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다. 통상 선생님들은 온순하며, 말을 잘 듣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학생을 추천한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실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것은 본인이 한 달 정도만 생활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교실 외적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평가받는지였다.

▶ 멘티(희망이_가명)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학교에는 다양한 교직원들이 있다.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 청소를 하시는 분, 당직 아저씨, 시설 주무관님, 배움터 지킴이 등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기에 본인은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질문을 미리 구성하고, 어떤 분을 만날지 계획을 다 했는데 계획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다.

점심시간 교직원들끼리 밥을 먹는데 유독 희망이에 대한 말이 자주 나온다. 돌봄교사A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희망이의 인성을 칭찬했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는데 희망이가 나서서 A교사와 팀을 이루어 아이들이 만족할 때까지 축구를 해주었다'. 청소 여사님은 '점심 시간에 운동삼아 탁구를 치는데 희망이는 항상 못하는 아이들과 한 팀이 되어 경기를 했고 절대 이겼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친구를 놀리지 않는다' 고 했다. 그리고 당직 주사님은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가 있어서 같이 있는 몇 명의 무리에게 좀 주워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두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했는데 희망이가 유일하게 나서서 주워서 버렸다' 고도 했다. 지금까지 준비한 질문과 계획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 본인은 희망이를 몇 주간 관찰한 뒤 바로 멘티로 낙점하게 되었다.

II. 「안티플래질리티(ANTIFRAGILITY)」 함양

모두가 인정하는 희망이의 인성과 리더십은 전교회장이라는 타이틀과 만나 더욱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이에게도 단점은 있었으니 다름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도전 의식의 부재였다. 희망이와 상담을 했을 때 가장 의외였던 점은 영재교육처럼 주말에 모여서 하는 교육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어떤 일이 닦쳤을 때 쉽게 예단하고 포기하는 성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하지 않겠다고 지레 겁을 먹기도 했다. 이런 성향의 희망이에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을 즐기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단을 키워주는 일이라 판단했다.

과거 미국에서는 화성 이주에 대한 실험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돔 안에서 식물을 키웠었다. 하지만 키가 커질수록 대부분의 식물은 스

스로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온도, 습도, 햇빛, 물 등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지만 식물들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바로 안티플래질리티가 함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끔은 바람도 불고, 태풍에 맞서기도 하면서 식물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강하고 깊이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기초가 약해져 쓰러지고 만 것이다. 안티플래질이라는 용어는 나삼탈레브가 만든 용어인데 「스트레스에 더 강해지는 특성」을 뜻하는 말로 지금 희망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진단했다.

바른 인성과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희망이에게는 실패를 경험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본인(멘토)의 장점을 살려 대한민국발명전시회에 아이디어를 내어보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지는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실과와 연계하여 주말 등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도를 그리고, 유사 아이디어를 검색하면서 무려 5개의 최종 작품은 제출했다. 희망이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전국적으로 약 23,00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되고 그중 200편만 뽑히는 극한의 경쟁률 앞에서 쓰디쓴 결과를 맞보아야 했다. 한동안 의기소침한 희망이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네가 만약 도전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선정되고 안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희망을 품고 있는 시간이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계속 하다 보면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온다' 희망이는 나의 말에 안도와 함께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영상제작과 공모전 도전이었다. 6학년 교육과정에는 미디어 제작과 활용이라는 주제가 있다. 이를 공모전과 결합시켜 희망이의 도전 의식을 자극했다. 콘티를 짜고 조원들을 다독

이는 역할은 잘 했지만 자신감 있게 연기에 도전하는 것은 힘들었나 보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응원 속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켰다. 「가정폭력: 자신이 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주제로 출품을 하였고 당당히 경남교육영상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내가 해준 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희망이와 친구들의 환호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전문가 멘토링, 과학고 방문 프로그램, 인공암벽장 등반, 문화체험(만화카페, 패밀리레스토랑, 축구경기 관람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Ⅲ. 희망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희망이가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로 선정된 것은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쌍둥이(이란성)이기 때문이다. 평소 체험을 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 할 때 뭐든 3배의 돈이 드는 희망이네의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희망이는 처음에는 영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활동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있는 아이였는데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초등학생과 주로 멘토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 좋은 과에 진학하는 결과를 보여줄 순 없지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을 키울 수 있었던 질적 성장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다.

가정과 일, 워라벨을 가져다준 선물같은 '영재키움 프로젝트'



내 인생은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나뉜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유능하고 세상 열정은 모두 가진 의욕 충만한 교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반드시 최고가 되어 꽃길만 걷는 나의 미래를 상상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하루하루 학교를 마치고 나면 다시 육아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했고, 매일이 허덕이는 바쁜 삶속에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은 사치에 불과했다.

더구나 재작년 교권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바로 전 해, 나도 논란의 중심에서 피해갈 수는 없었다. 딱 교직 생활 10년만의

이정은 만승초등학교 교사

가정과 일, 워라벨을 가져다준 선물같은
'영재키움 프로젝트'

일이었다. 늘 아이들과의 새로운 경험과 눈뜨면 학교 가는 일상이 기다려졌던 내 스트레스의 돌파구가 바로 교실이였다. 그러나 내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결과는 참담했다. 학부모의 민원과 교직사회의 쓴 맛을 본 내 인생 최악의 문턱에서 나는 교직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고, 병원과 가족들의 보살핌, 그리고 따뜻한 교장선생님과 동료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다시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교직에 대한 미련과 열정을 놓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일터에 나가는 그 저그런 근로자의 모습으로 내 내면 속 깊은 곳의 자아와 싸우며 애써 현실을 외면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그 이듬해 가족같은 동학년, 헛살갈던 우리반 아이들과 일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웃다가 끝난 한해였다. 나는 마음속에 스물스물 고개드는 열정들에 불안해 하며 그동안 못다한 엄마,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람일은 한치앞을 모른다고 내가 좋아하는 발명덕분에 과학부장을 맡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들이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나왔다. 일복이 터진 올 해 앞친데 똬친격으로 다른학교 선생님께서 영재키움 프로젝트 멘토교사를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다. 사실 그 공문은 보고도 고이접어뒀던 공문인데 찝찝한 마음은 역시나 내가 해야할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일에 치여살던 워킹맘은 간신히 되찾은 엄마 타이틀을 또 반납해야된다는 부담감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했다. 사실 '영재' 교육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배움의 기회를 떠밀려서 한다는 내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들었다. 그렇게 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에 가게되었다.

내 눈에 비친 그날의 광경은 모두가 전문가처럼 보였고, 수기 발표하는 선생님들의 화려한 스펙에 잔뜩 기를 눌린 내 모습에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몇해가 쌓여 빛나는 졸업장같은 수기 말고, 나처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선배 멘토교사로부터 건네들은 방법들은 나에게 부담만 가져올 뿐 나만의 방식으로 학생과 즐겁게 진솔하게 시작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동아리 활동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처음에 다섯명의 아이들로 시작해서 나와 함께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도현이까지 여섯, 그들의 첫만남 공기는 뭔가 모를 벽이 느껴졌다. 유독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해보이는 도현이는 한눈에 봐도 총명해보였지만 부족한 2%를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웬지모를 사명감이 들었다. 그날부터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으로 함께하는 프로젝트학습으로 하나되는 동아리활동을 시작했다. 소극적이던 도현이가 잘하는 분야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역할을 쥐어줬다. 서로에 대해 아는게 없던 아이들은 '같이' '함께' 라는 동아리활동으로 어느새 공동체 역량을 공감하기 시작했고, '도전'이라는 선의의 공동 목표를 하나로 숨겨진 재능을 발현하게 됐다. 읍소재지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과학소외계층이 많고, 과학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를 토대로 일단 많은 경험과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과학체험행사에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를 나눠서 빠짐없이 참여했고, 자연과학교육원 체험학습, AI영재캠프, 학교로 찾아오는 과학특강, 방사광 가속기 사이언스캠프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 과학문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또한 기초적인 과학이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특성에 맞는 교내대회를 준비·출전했다. 결과는 도현이를 비롯해 전원 수상을 거뒀고, 여기서 얻은 자신감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청소년 과학페어에서 융합과학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동아리 주제탐구를 심화시켜 전국학생과학발명대회에서 우수 상이라는 빛나는 결과를 얻었다. 그 중심에는 도현이가 있었고, 어느새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발전을 축하해주며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혼자가 아닌 ‘우리’ 라서 해낼 수 있는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제껏 기회가 없어서 소질을 알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공간에서 각각의 이름을 찾아 빛나는 주인공으로 하나씩 두각을 드러낸다는 것이 교사로서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어느정도 자신감을 찾은 아이들은 주말 과학콘서트와 학교 축제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과학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했다. 재료부터 기획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뼘 더 성장하고 있었다. 이 사이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과학 영역을 나누고자 시간을 쪼개 들은 과학연수만 100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열심히 나만 보고 따라와주는 아이들에게 나부터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연구했고, 이를 토대로 영재 선발교사 해외연수도 다녀오는 행운이 주어졌다. 스승은 제자의 거울이라고 했던가, 도현이도 캐나다 연수에 다녀오는 등 우리 둘은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영재키움 멘토교사 연수를 통해 앞이 캄캄했던 처음과 달리 나는 어느정도 멘토교사 자격을 갖추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재의 특성부터 창의적인 역량, 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도현이를 비롯한 동아리 친구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또 어떤 무대를 만들어 줘야할까 고민하게 됐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솔직담백한 교단이야기로 커피차 이벤트를 제공하여 학교 공동체에게 지친 학교생활을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동료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꿈만 꿔던 다양한 활동들을 특정 소수의 혜택이 아닌, 학교공동체 다수의 혜택으로 누릴 수 있었고, 워킹맘이라는 현실적 장벽앞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꿈, 열정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매일 바빠 뒷전이었던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에 함께하며 선생님이라는 엄마의 직업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했다. 매번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만남을 기다리게 해주신 영재키움 프로젝트 활동들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완벽함을 더해 나와 도현이를 설레게 했다. 전문가 멘토링 데이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나눔정신과 ‘모든이가 좋게 여기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공동선을 목표로 한 우리의 과학활동들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VR 과학과 미술을 융합한 영동균 작가의 퍼포먼스에 감탄하며 신선한 문화충격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선생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도 VR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라는 도현이의 말에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 능력이 되는한 도현이가 원하는 건 다해줘야지!” 사실 그 바쁜 와중에 지능형 과학실 사업까지 맡아 VR기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어느새 아이들과 나는 우리들의 무대 위에 퍼포먼스하며 꿈꾸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게 된다. 영재는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사회적 감수성을 키워주며 숨겨진 역량을 찾아 발굴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늘 워라벨을 꿈꾸지만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힘들어 하게 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로 누구나 일과 가정을 지키며 선물같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육아휴직 후) 복직교사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영재키움 프로젝트



1. 첫 만남

4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24년 중학교 1학년 담임으로 복직을 하여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학급에서 참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찾아와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신청해보겠다고 하였고 얼마 뒤 선정이 되었다는 공문과 함께 멘토교사의 매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막 학교에 다시 적응하고 있는 내가 학생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학급의 학생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멘토교사로 활동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 멘토&멘티 서로 알아가기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에게는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선배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티와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프로젝트 1년과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1대1 채팅방을 오픈하고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통해 멘티 학생이 학습에 대한 의욕이 넘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성향과도 잘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전문가 멘토링데이에 참여한 이후 일정에 멘티와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지하철을 타보고 싶고 하트티라미슈를 먹어보고 싶다는 멘티의 요청에 횡성에서 오전 11시에 KTX를 타고 서울대 일정과 압구정 로데오거리 데이트까지 마치고 밤 11시에 횡성에 돌아오는 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로데오거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저희의 MBTI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멘토-ESFJ // 멘티-ENFJ) 이 영재키움 프로젝트 덕분에 아주 쿵짝이 잘맞는 학생을 만나게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3. 팀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과 배려 학습

마침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학주제발표대회 공문이 있어서 멘티학생에게 제안을 했고, 학교에 마음이 맞는 친구와 2인1조로 준비를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주고 조력해 주는 역할이 제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하는 프로젝트라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다행히 예선 작품을 출품할 수 있었고 여름방학에 카이스트에서 주최한 영재키움 교사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였고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본선 준비를 위하여 학교에 나와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수정하며 발표준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선대회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연습할 때보다 더 멋지게 발표도 잘하여 대상까지 수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멘티학생은 발표하는 자세 및 태도가 너무 좋고 심사위원의 질문에도 재치있는 답변을 하는 등의 다양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 영어발표대회 및 노래자랑대회 등 다양한 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학급의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들이 각자 속도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수학교사인 저는 공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수학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주최하는 수학나눔축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4인1조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학생

들에게 공지를 하였고, 멘티학생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해보고 싶다며 지원을 하게 되어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학교 선배 언니 오빠들이 준비한 발표들을 보고 학생들이 직접 여러 수학적 원리를 체험하고, 다양한 수학적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친구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수학의 원리를 찾아보며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이번 자율연구주제탐구활동도 자발적으로 신청하고자 하였고, 계획부터 실험활동 및 결과보고서까지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 복직교사의 방향성을 찾은 연수

수학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수학의 중요성 및 실용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하며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육아휴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복직한 저에게는 이제 수학교사이자 엄마교사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고 멘티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교사로서의 장점을 잘 살려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교사의 사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에서 실시한 여름방학 직무연수를 통해 영재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론과 문제 중심 학습법 및 협력 학습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고, 동료 선생님들의 다양한 활동 방법 및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며 교사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와 호기

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연수는 교사로서 제 교육적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5. 다시 또 시작

7개월 동안의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멘티학생이 학문적 도전을 즐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멘토교사인 저에게도 수학교사이면서 담임교사로서 학생 개개인에게 학업 및 진로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학생 부문

최우수상

김준현 한솔고등학교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한 나의 꿈
- '건강한 지구,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



내가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만난 건 초등학교 때였다. 지금은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돌이켜 보면 그 만남은 필연이었다.

1. 나의 관심사

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새로운 것이 눈에 띌면 궁금하여 일단 손에 들고 살피고 그 원리가 궁금하여 하나씩 해체하여 그 구조를 살피고 골똘히 생각하곤 했다.

서랍을 뒤적거리다 잘못 걸린 물건들은 내게 잡혀서 해부되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아버지의 망원경, 카메라, 시계... 그렇게 얻게 된 별명은 '이놈의 손가락' 이었다.

김준현 한솔고등학교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한 나의 꿈
- '건강한 지구,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만날 무렵의 관심사는 별, 달, 우주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영재반에 참여하여 호기심을 충족하고 관련 책들을 보며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2. 나의 멘토선생님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나의 멘토선생님이 마침 과학선생님이셨고, 천문학을 전공하셨다니 나는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우주공학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친구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웹기 전에 「우주산업공학」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셔서 그 책을 읽고 특별히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또한 과학실에 있는 천체관측 망원경으로 학교 옥상에 올라가 별을 관측하고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다. 그런 시간들은 내 꿈의 씨앗이 꿈틀거리며 싹이 트고 자라는 시간이 되었다.

3. 영재키움 프로젝트에서 받은 영향

영재키움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의 꿈을 지원하였다.

1) LG-KAIST 영어과학캠프

영어캠프도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나와 비슷한 친구들과 조별모임을 갖고 로봇청소기를 만들어보는 흥미로운 활동을 하고 외국인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뉘보며, 글로벌한 인재의 꿈을 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진로탐색프로그램(전문가와와의 만남)

진로탐색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막연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이야기로 꿈을 구체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3) 독서프로그램

매달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도 유익하다.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바쁜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이 읽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인데, 매달 책을 선정하여 발문을 해주는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의 지침 역할을 해줘서 가능하면 읽으려고 노력했고, 지식을 넓히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 자신감이 만들어낸 리더십

1) 세종학생 연합회장으로 활동

영재키움 프로젝트에서의 여러 활동으로 자신감이 생긴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교회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공약을 만들고 실천하며 기획력과 실천, 학생회를 이끌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리더십을 키웠다. 고등학교에서는 세종시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총회를 이끌고 교육감님께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건의하는 등 교육의 주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다른 지역 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별 교육 격차 완화에 대한 의견을 대표 발언하였고, 투표결과 내가 개진한 의견이 선정되어 각 교육감님들께 나의 의견이 전달되는 성과도 있었다.

2) 과학동아리(MPEX) 설립

멘토 선생님과 꿈 이야기를 발전시킨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동아리를 만들었다. 동아리에서는 천체 관측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학교 옥상에서 천체 관측을 했다. 로켓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실험을 하며 교과 심화탐구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우리 동아리의 활동을 눈여겨보시고 지원을 약속하셨다.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솔빛 별 축제' 개최

2024년 10월 24일 내가 만든 동아리가 주최가 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천체 축제는 상황리에 펼쳐졌다. 과학도서를 진열하여 우주관련 지식에 도움을 주고, 부스운영도 했다.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 관측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축제를 즐겼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 내가 만든 동아리를 한솔고등학교의 전통 동아리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영광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내가 만든 동아리가 역사가 되다니 너무 뿌듯했다.

5. 성장하는 나의 꿈

리더로 활동을 하면서 흥익인간의 정신은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했다. 리더란 개인의 유익을 먼저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함께 가는 마음으로 서는 자리다.

호기심 많고 별을 좋아하던 나는 이제 버릇처럼 지구를 생각한다. 별을 보며 내가 살고 있는 별, 지구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난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산불, 생태계 교란 등 건강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인 듯하여 마음이 편치않다.

지난 6월엔 타 지역 의장단과의 교류가 있었고 나는 세종학생대표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 전국학생의회의장단 기후행동 공동선언과 토론이 있었는데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구체화 되고 실천해야만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문제를 느끼면 해결력이 있어야 하고, 그 해결력은 의지와 함께 능력도 필요하다.

6. 나의 도전은 계속 된다.

나는 정치외교학에 관심이 생겼다. 공부를 하고 국제기구에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나가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싶다.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협력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나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어느새 그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로 가지를 뻗고 있다. 만약 수상을 하게 된다면 내게 큰 응원이 될 것이고, 나는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나의 꿈을 실현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은 ‘건강한 지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학생 부문

우수상

이상진 금산초등학교

미래 지구를 지킬 멋진 발명가의 꿈



유치원 때는 ‘원하는 것이 똑딱 나오는 자판기를 만드는 사람’ 이 되는 꿈을 꾸었고, 초등학생이 되면서 ‘세상을 바꿀 멋진 발명품을 만드는 발명가’ 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은 ‘미래 지구를 지킬 발명가’ 의 꿈을 꾸고 있다. 손에 잡히지 않던 막연한 꿈이 점차 뚜렷해진 것은 ‘카이스트 영재키움 프로젝트’ 덕분이다.

내가 사는 강원도는 서울과 달리 과학 시설을 찾기 어렵다. 이게 첫 시련이었다. 발명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적어 늘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창의 융합 캠프’ 를 통해서 이러한 부족함이 채워졌다. 작

이상진 금산초등학교

미래 지구를 지킬
멋진 발명가의 꿈

년과 올해 모두 서울대학교에서 캠프가 열렸다. 넓은 캠퍼스를 보고 한번 놀랐고, 교수회관 식사가 맛있어서 다시 한번 놀랐다. 캠프 특강을 통해서 ‘미래인재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고 ‘과학과 예술’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강의가 매년 재미있어서 좋다. 내년 강의도 기대된다. 올해 캠프 일정에는 ‘국립 과학관’ 견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엄~청 컸다. 오래된 공룡의 뼈부터 지금의 곤충과 동물들도 전시되어 있었고, 조선 시대 천체 관측 장비부터 현재의 우주선까지 볼 수 있었다. 직접 천체 관측 장비를 통해서 태양 흑점도 볼 수 있었다. 나도 이런 멋진 기술을 활용한 관측 장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니!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과학관은 듣고, 보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멋진 장소였다. 그 중 우주항공을 다루는 첨단 기술관은 꼭 한번 더 가고 싶은 곳이다. 거기서는 진짜 배울 것이 많았다. 나랑 친구들은 거기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에 대해 배웠고, 양자 역학, 5차원 블랙홀, 암흑 물질 같은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배웠다.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흥미로웠다. 또한, 발명과 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 2박 3일을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 과학, 수학, 만들기 등 관심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두 번째 캠프 참가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누구세요?’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서로 이름도 기억하고 반갑게 별명을 부르며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다. 금년에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여자아이도 새롭게 만나서 친해질 수 있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다.

서울보다 학원이 적은 강원도는 내 꿈에 도움을 줄 AI/코딩/발명에 대해서 배울 곳이 적다. 대신 학교 과학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궁금증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쌤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쌤과 함께’는 과학/발명/코딩 전문가 선생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주신다. 선착순 신청인데 인기가 많아 신청 시작 10분 만에 마감되는 과목도 많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지역 친구들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꼈고 나도 더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는 ‘AI 상자’, ‘적외선 센서 로봇’을 만들어 보면서 코딩과 함수, 적외선 센서의 작동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해에는 ‘마술과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수학’, ‘거짓말 탐지기로 과학 수사하기’, ‘AI 선풍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수학의 2진법과 10진법을 활용해서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드게임은 정말 놀라웠다.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숨겨져 있던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브레드보드, 저항,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었는데, 트랜지스터는 논리 회로 역할을 해서 메모리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 꿈에 크게 한 걸음 나아간 것 같다.

학교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KAIST 대학생 형의 ‘온라인 학습 멘토링’ 덕분이다. 학습지 ‘개념 썬 수학’으로 방학 동안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헛갈리고 어려웠던 입체 도형도 아주 쉽게 설명해준 덕분에 잘

배울 수 있었다. 그 덕에 학교 단원 평가도 매년 100점을 맞을 수 있었다.

멋진 온라인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직접 만나는 '1:1 멘토교사 멘토링'은 정말 마음에 든다. 지난 2년 동안 멘토 '이창준' 선생님과 만날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친근하면서도, 늘 새로운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어 신선한 자극을 주는 분이다. 저금통 만들기, 입체 조각 맞추기, TRIZ 발명기법 보드게임과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활동도 선생님과 함께하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재미있었다. 선생님은 코딩책을 직접 쓰신 코딩 전문가인데, 1:1 총쏘기 게임을 만드는 코딩을 같이 만들면서 어려운 변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명대회, 창의력 경진대회 문제, 탈무드 유산 상환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발명가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과학고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었다. 작년에 강원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고,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실험실을 구경하고 기숙사도 볼 수 있었다. 형/누나의 설명에 따라 피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혈액을 살펴보면, '4년 뒤에는 내가 선배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진학하고 싶었던 KAIST에도 작년에 직접 방문할 기회도 있었다. 오리 연못을 배경으로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분야별로

건물이 예술적이고 각 과목별로 특성화된 시설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꼭 빠져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식당 밥이 맛있어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밥맛이 진짜 꿀맛이었다.

'카이스트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만나, '세상을 바꿀 멋진 발명품을 만드는 발명가'였던 나의 꿈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발명품을 만들어 미래의 지구를 지키는 발명가'로 더욱 뚜렷해졌다. 한 단계 성장한 내 꿈처럼 영재키움 프로젝트도 더욱 성장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주면 좋겠다.

학생 부문

우수상

송연우 충주대소원중학교

익숙함에서 찾은 새로움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대소원중학교 2학년 송연우입니다. 저는 2020년 초등 4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기공모전에 참가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데, 우선 올해 제가 활동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4년은 5월 온라인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6월 대전대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격주 토요일 카이스트 학생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하는 3시간의 수학, 과학 온라인 멘토링은 여전히 제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8월에 참여한 여름 캠프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이미 아는 친구도, 새롭게 만난 친구도 있

송연우 충주대소원중학교

익숙함에서 찾은 새로움

있습니다. 충청, 호남권역의 여러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모르는 세상을 또 배웁니다. 멘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커뮤니케이터 수업은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거짓말 탐지기로 과학수사하기’ 강의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직접 만들며 과학수사원리를 배웠고, ‘점과 선만 알아도 충분한 수학이라고’에서는 경우의 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학교 2-2학기 수학에서 경우의 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이런 거를 배워서 어디에 쓰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로 경우의 수의 무궁무진한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수학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아이큐 퍼즐 램프만들기’에서는 쌍대다면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커다란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램프를 밤에 켜놓으면 무섭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쌍대다면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11월 대전대의 전문가멘토링데이에서는 한의사, 경찰관, 승무원이 오셔서 생생하게 직업의 세계를 소개시켜 주셨으며, VR로 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도 보았습니다.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멋진 공연과 함께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작가님의 덕담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간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마다 한 권씩 지정된 책을 읽고 인문 활동지를 작성하는 독서 프로그램에도 잊지 않고 꼭 참가합니다. 우수 제출자에게는 집으로 기념품도 발송해 주시는데 이번 달에도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홈페이지를 열어 확인할 때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저는 하루질문챌린지에서 KAIST 총장상도 받았습니다. 하루질문챌린지는 클라썸을 활용해 하루 1개 이상의 질문을 일주일에 5일 이상, 8주간 작성해서 완주하는 활동입니다.

8주간 매일매일 고민해서 좋은 질문을 찾아내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답글을 적는 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완주하며 좋은 질문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재키움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던 저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는 새로운 멘토 선생님께서 충남에 계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4년간 초등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계속 함께 했던 터라 중학교도 아닌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얼마나 어려울지 처음엔 덜컥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선생님과 매번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은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 읽기로 시작됩니다. 고전소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본 내용들부터 시대적 상황, 풍자, 해학, 현대소설, 영화, 노래, 힙합까지 과거부터 현재, 미래를 오가며 광범위하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의 수업은 제 세상을 넓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멘토 선생님은 저에게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연암 박지원과 관련된 학술 논문 읽기까지, 처음에는 정말 어리둥절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니 어느덧 훌쩍 성장한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첫 소논문을 썼습니다. 제 소논문의 주제는

한국 청소년의 과학 재능기부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학 유튜브 영상 제작하기]입니다.

제 생각과 연구 결과를 담은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논문 쓰는 법, 소논문 양식’ 등을 찾아보았지만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때 멘토 선생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업 때마다 선생님과作業물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오타부터 내용의 오류 수정이나 첨삭 같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글을 쓸 때는 지나쳤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수정하고 나니 글이 훨씬 매끄러워져서 신기했습니다. 각주를 달고, 주제를 굵게 강조하고, 폰트도 바꾸니 더 보기 좋은 논문이 되었습니다. 또 논문을 찾을 때 주의할 점, 보면 좋을 논문이나 글, 논문을 읽는 방법 등 더 가르쳐 주신 내용도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논문을 완성한 후 검토해보니 ‘이게 정말 내가 적은 글이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설문조사 과정, 양식도 미흡했고, 연구 주제를 정할 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설문조사를 할 때 질문도 더 세세하게 작성하고 설문 대상의 인원도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더 좋은 연구 주제는 없었을까?’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소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5년차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자입니다. 영재키움과 함께한 시간이 적지 않아서 올해에 겪을 특별히 새로운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기를 쓰며 한 해를 돌아보니 익숙한

경험에서도 낯선 감상을 느꼈고, 색다른 경험도 했으며,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소논문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 또 성장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11월 30일에는 멘토 선생님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많은 것을 얻어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익숙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선물이 되어준 영재키움 프로젝트



나의 부모님의 교육방침은 핸드폰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가질 수 있고, 컴퓨터는 검색용, 인강용, 숙제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TV도 모니터만 있을 뿐 방송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그 흔한 TV 시청도 집에서 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나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게임이나 TV 얘기를 할 때 함께 하지 못하고, 늘 외톨이처럼 혼자 있곤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는지, 어느새 나는 욕구불만과 분노가 가득한 아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 4학년 때 과학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엄마께서

영재키움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다. 일상이 불만이었던 나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기꺼이 나의 멘토를 해주셨던 4학년 담임선생님이신 서영 선생님의 적극적인 조언으로 영재키움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수업 이후에 선생님과 다양한 과학제품을 체험해 보고, 코딩 수업도 하면서 영재키움 프로그램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학고 견학과 카이스트 방문이었다.

경남과학고를 방문했을 때 과학고 2학년 형들이 해주는 학교투어와 학교생활 이야기는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웠다. 한 형이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 수록된 발명대회 책자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도 과학고에서 공부하고, 발명대회도 나가 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소망함이 생겼다.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에서 진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카이스트에서 과학자의 꿈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나 같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2023년 어느 날, 기적처럼 지금의 하재설 선생님을 멘토로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은 지금껏 내가 경험해 보지도, 생각해 해보지 못한 너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학 관련 수업을 진행해 주셨다. 직접 드론을 날려보면서 드론의 원리를 배우고,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강으로 나가 카누를 타보기도 하고, 코딩을 통

해 로봇을 조종해보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원리를 배워 나가는 것은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가슴 벅찬 일이었다.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나는 발명대회(제36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 나가게 되었다. 발명 결과물을 만들 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다양한 경우들을 설명해 주셨고, 그 덕분에 동상을 받게 되었다. 동상 수상을 하고 내 작품이 실린 책자를 받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책자는 전년도에 과학고 방문 당시 만났던 형이 주었던 책과 같은 것이었다. 발명대회를 나가면서도 그 형과 같은 대회였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막연하게 나도 그 형처럼 발명대회 나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1년 만에 같은 발명대회에 나가게 되고 게다가 수상까지 하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하재설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내가 뭐만 해도 '엄청 잘했다고, 영재는 다르다'며 늘 과분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엄마께서는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때문인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늘 죄송하다. 나를 향한 선생님의 열정과 사랑은 말로도 글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선생님의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에 억눌려 있던 큰 덩어리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부정적 감정들이 점차 해소되고 그 자리에는 선생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

최근(11/2)에는 진주교대에서 주최하는 경남어린이학예술회展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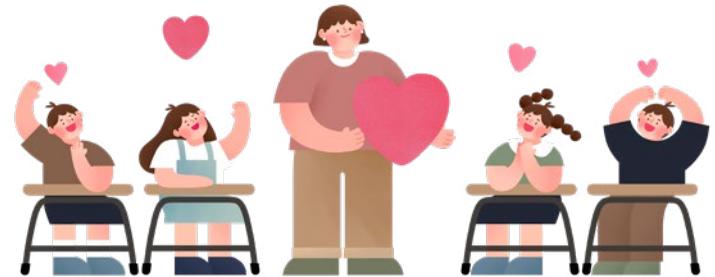
말하기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받았다. 사실 지금껏 관심을 가졌던 과학하고는 다른 분야이기도 하고, 집에서 하는 엄마표 영어가 전부인 내게 영어말하기대회는 큰 도전이었다. 처음 나가는 대회라 아무 정보도 없어서 원고 작성부터 쉽지 않았지만,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3년째 해오면서 생긴 도전정신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재설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로 얻게 된 자신감으로 도시아이들 틈 사이에서도 시골 출신(경남 산청군)이라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다.

요즘 많은 청소년이 구체적인 꿈이 없다고 한다. 나 또한 그런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훌륭하신 선생님을 선물 받았고, 꿈도 선물 받았다. 내 꿈은 사람을 살리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전기가 없어도 빛을 낼 수 있는 램프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UV 살균기를 발명해서 아프리카에 밝은 빛과 깨끗한 물을 나눔 하시는 '빛을 나누는 사람들', 쉐어라이트 대표 박은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올 초부터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다. 과학고를 거쳐 카이스트에서 사람을 살리는 과학을 공부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엄마 말씀으로는 도시 아이들은 특목고 전문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하며 과학고 준비를 한다고 한다. 나는 비록 집안 형편으로 과외도 할 수 없고, 학교·집 주변에 학원이 없어서 다닐 수도 없지만, 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영어말하기대회에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지금껏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배워왔듯 결과보다

는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영재키움 프로젝트 선생님들과 함께 풍덩! 과학 속으로



저는 3년째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에 도전할 수 있었고, 과학에 점점 관심이 많아져서 올해에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 저를 도와주신 여러 영재키움 선생님들과 함께 과학에 빠져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우리 멘토선생님과 함께 과학에 풍덩! [1:1 멘토교사 멘토링]

우리 학교에는 저의 멘토선생님이 계십니다. 저의 멘토 선생님은 저 말고도 2명의 다른 영재키움 프로젝트 친구들의 멘토이기도 하

습니다. 저희는 2층 과학실에서 모여서 무엇을 주제로 탐구해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결국 지구와 달, 기후, 수학·과학 실험을 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후와 함께하는 지구와 달 탐구〉에서는 달의 위상변화와 그에 따른 관측 가능 날짜에 대한 탐구를 하였습니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의 모습을 주로 관찰하였으며, 그믐달처럼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운 날은 스텔라리움 앱을 이용해서 간접 관측하였습니다. 음력 한 달 내내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이 좋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절이 변하는 까닭을 모형으로 학습해 보면서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습니다.

〈기후와 함께하는 산과 염기〉에서는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알아보고 생활 속의 재료의 산성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pH 테스트용지를 주셔서 여러 가지 생활 속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 약산성과 약염기가 많았습니다. 교과서 속의 용액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생활 속 재료들의 산성도를 알아보니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2 다른 멘토선생님과 함께 과학에 풍덩! [창의융합 커뮤니케이터]

창의융합 커뮤니케이터를 통해서 다른 멘토 선생님들과 네이버 웨일온으로 만나서 활동해 보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중학교 과학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더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커질 뿐만 아니라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시각화〉에서는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컴퓨터가 오류 난 것처럼 숫자, 영어가 계속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열심히 따라 해보니 실행 결과가 생각보다 깔끔해서 신기했습니다. 이번에 파이썬을 배우면서 승객 891명 중 549명이 사망했던 타이타닉 사건, 붓꽃의 꽃잎 150장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도 해보았습니다. 기초 단계였지만 그래도 텍스트코딩을 배웠다는 자부심이 들고, 앞으로 파이썬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 또 해보고 싶습니다.

〈양말목으로 휴지 케이스 만들기〉에서는 햄버거 모양 휴지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버려지는 양말목을 규칙적인 모양으로 반복하여 엮어서 업사이클링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흰색, 갈색 양말목으로 빵, 토마토, 상추, 양파, 고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활용해 보니 쓰기도 편리하고, 예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슬처럼 반복되는 모양으로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오다니 보람도 있고 비슷한 것들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블루투스 만들기〉에서는 나무로 된 조립 기구, 브레드보드, 전선 등 부품들을 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초

반에는 이런 간단한 장치들로 진짜 소리가 날지 의문이 들었지만, 조립을 다 하고 스위치를 켜더니 “블루투스가 동작합니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바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보았더니 “페어링이 되었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니 스마트폰보다 훨씬 풍성한 소리로 들려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3 KAIST 선생님과 함께 과학에 퐁딩! [온라인 학습 멘토링]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카이스트 선생님과 함께 매번 수학, 과학을 각각 1시간 30분씩 공부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이해될 때까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업시간 초반에 지난 시간 내주셨던 숙제 중 어려웠던 문제와 틀린 문제를 선생님과 풀어 봅니다. 그다음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내용의 개념을 이해한 후 개념 문제를 풁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 와야 할 숙제가 됩니다. 과학은 수업 한 번에 한 단원을 나가서 숙제가 조금 많았지만, 저는 과학을 좋아하게 되어 숙제가 많아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멘토링에 참여하니 기본 실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학교 시험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제가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과학에 빠져보았던 경험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1:1 멘

토교사 멘토링]으로 기후와 함께하는 지구와 달 탐구를 통해 달을 관찰하고 지구와 달의 위상에 따른 현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과 염기에 대해 배우고 일상생활 속 재료의 산성도를 탐구하였습니다. [창의융합 커뮤니케이터]를 통해서 관심 있던 분야인 텍스트코딩, 규칙적 배열에 따른 구조, 블루투스를 활용한 전자기기 만들기에 대해서 다른 멘토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가져보니 참 좋았고, 이런 수업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학습멘토링]을 통해서 수학, 과학 교과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피드백 받으면서 기본적인 과학 실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를 더 성숙시키고 저의 꿈에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꿈으로 다가가는 징검다리, 영재키움 프로젝트



나의 꿈은 식품영양 연구원이다. 작년에 권장 도서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보다가 이 세상 한편에서는 잘 먹지 못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음식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진국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내가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가 어른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만든 고영양가의 음식을 섭취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내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빠한테 여쭙어본 적이 있다. 아빠는 식품영양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해서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 같은 국제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전 세계를 위해서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이니 당장은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덧붙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올해 입학하게 된 중학교부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모든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수학과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에 과학반이 개설되었다는 공고를 보았다. 과학반을 활동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과학반에 지원하였다. 지원서를 내고 면접에도 내가 아는 바를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나,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낙심하고 일주일 정도는 마음이 쓸쓸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과학반에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아셨는지, 내게 “영재키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내가 과학을 좋아하니 다시 힘내서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지 조언해 주셨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영재키움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 참여하고 싶었지만, 한 지역에서 선발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가 뽑힐 수 있을까?’ 하고 긴장도 되고 지원을 주저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다. 한 글자 한 글자 성심성의껏 자기소개와 포부를 적어 영재키움을 담당하는 선생님께 제출하였다. 두근거리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영재키움 발표날, 발표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합격 이후 올해 6월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에게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첫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아두이노라는 것을 이용하여 신호등 프로그램도 만들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로 입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튿날엔 카이스트에 방문하여 학교도 보고, 기념사진도 찍을 기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오빠와 언니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이나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카이스트에 다니면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영재키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뿐만이 아니다. 매달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하는 활동도 있는데, 좋은 도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독후감을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기회도 되었다.

방과 후에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멘토 선생님들의 강좌를 신청하고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학습멘토링’이라고 멘토 대학생 오빠의 과학 과목 강좌를 신청했는데, 따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대학생 오빠의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미리 과학 과목

교과 과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도 있었다. 아마 혼자서 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엔 끄끙대며 책을 봤을 텐데, 대학생 오빠 강의를 들으니 좀 더 쉽게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 멘토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흥겨웠다. 대전에서는 아쿠아리움 관람도 하면서 각종 생물도 볼 수 있었고, 멘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멘토 선생님이 제공하는 특강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수강할 수도 있었다.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는 들을 수 있는 과학 저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일일이 글로 나열하기 힘들 만큼 영재키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쉴 새 없이 무궁무진하게 제공이 된다. 난 그저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매일 매일 내 키가 조금씩 크는 것처럼 나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난 아인슈타인처럼 타고난 천재가 아니다. 탁월한 영재는 아니지만 “영재키움”의 “키움”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있듯이,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내가 점점 성장하고 커나가는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단순히 내가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 근본 원리를 알고 익혀, 세종 대왕처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다.

또한 내가 지금은 멘토로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는 중학교 학생이지만, 짧게는 몇 년 후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멘토 대학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좀 더 자라 어른이 되어

식품영양 연구원이 된다면 전 세계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내게 이런 즐겁고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 담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이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한발 한발 나갈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선생님들께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이면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영재키움이 함께 도와주셔서 제 목표로 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 역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하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서 성장'해 나가는 영재키움 이야기



2024년.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드디어 중학생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 보게 되는 시험으로 인해 그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어 학교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2학기부터 시험 보니까 1학기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고 나는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하던 순간, 나는 「KAIST 영재키움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작년엔 나는 「KAIST 영재키움 프로젝트」 활동으로 온라인 학습멘토링,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학습방법과 진로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영재키움 프로젝트랑 학교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적어보려고 한다.

#1 KAIST 형들과 함께한 온라인 학습멘토링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온라인 학습멘토링이다. 온라인 학습멘토링은 KAIST를 다니는 형, 누나들이 ZOOM을 통해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수학과 과학 과목을 수업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중 첫 번째는 복습이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이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복습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복습할 시간에 한 시라도 진도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복습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알아서 복습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KAIST 형, 누나들이 내가 놓친 부분을 다시 되짚어 주면서, 더욱 더 학습을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활동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집중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게 뭐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일단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수업 시간이 5분 더 늘어난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5분 정도 추가된 것은 별 상관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토요일에 온라인 학습멘토링을 오랫동안 들었고, 1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나는 5분이 추가된 수업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다.

#2 멘토 선생님과 함께한 진로 & 독서 활동

온라인 학습멘토링에 이어 내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멘토 선생님과 함께 서울대학교를 다녀온 것이다. 작년에는 대전과 학영재학교를 멘토 선생님과 함께 견학하였지만, 올해는 멘토 선생님과 함께 개별적으로 서울대학교를 다녀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라 그런지 대학교가 엄청나게 컸고, 특히 도서관을 가 보았는데 정말로 큰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둘러보다가 서울대를 다니는 형, 누나들을 만났는데, 나는 그 형, 누나들을 보면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서울대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그리고 이 서울대를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곧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했고, 이를 계기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또한 멘토 선생님과 함께 독서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사실 나는 독서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공부할 시간 때문에 나는 독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독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내 나이에 읽으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멘토 선생님과 ZOOM을 통해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말하면서 나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었다.

#3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재키움 활동 「창의융합캠프」

마지막으로 소개할 활동은 「영재키움 프로젝트」 활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창의융합캠프이다. 창의융합캠프는 1박 2일 동안 대전대학교에서 진행되는 SW·AI에 관련된 창의융합캠프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작년에도 다녀왔던 캠프였지만 기대되었고, 또

걱정되었다. 대전대학교에 도착해서 밥대식을 하고 방을 배정받았다. 첫날 프로그램에서는 대장장이 보드를 이용해 수업했는데, 대장장이보드에 각종 센서, 버저, LED 등을 연결하여 어떤 조건을 주어서 LED를 켜지게 하거나 버저가 울리게 하는 것이다. 대장장이 보드가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있어졌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 하면서 점점 대장장이 보드의 사용법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대장장이 보드를 정신없이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다. 아주 맛있었던 뷔페 저녁을 먹고 다시 강의실로 돌아왔다. 수업이 시작하고, 전보다 더 심화된 수업을 진행했다. 확실히 전보다 어려운 것이 느껴졌다. 중간에 진짜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줬다. “뭘, 어려운 거 있어?”, “어, 이거 좀 도와줘”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말하니 그 친구가 친절히 나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서로 도와가며 수업을 마쳤다. “내일은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친구와 함께 대장장이 보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끝나기 전에 말씀하셨다. ‘아, 피곤하다. 그래도 재미있었어.’ 혼자서 생각하면서 수업이 다 끝나고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수업할 때, 내 옆자리 앉았던 그 친구가 내 룸메이트였다. “오, 안녕! 또 만났네.” 그 친구가 말했다. “어, 그러게” 내가 대답했다. 잘 준비를 마치고 나는 자기 전에 그 친구에게 말했다. “내일, 열심히 하자”, “당연하지”

룸메이트인 친구와 함께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밥을 먹고 우리는 어제 SW·AI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로 갔다. 그리고 어제 예고한 것

처럼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대장장이 보드를 이용해 가전제품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대장장이 보드에 온도 센서, LED, 버저를 이용해서 일정 온도를 넘으면 LED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하고 소리가 나게 했다.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닌, 나랑 친구가 함께하여 우리가 과제를 해결하여 만든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 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수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의융합캠프로 나의 활동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 나의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영재키움을 선생님과 가족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냥 귀찮고, 하기 싫었다. 그런데 지금은 영재키움 프로젝트 활동에서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약간 좀 신비로운 것 같다. 나와 같이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거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기대하고, 좋아하고, 즐기게 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러니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이 프로젝트가 신비로운 이유다. 어쨌든 나는 이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너무나도 추천한다. 영재키움 활동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고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서 성장’ 해 나가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활동이 자랑스럽다.

2024

영재키움 프로젝트 후기 공모전

내가 만난 영재키움 프로젝트

Growing UP Gifted Project

T M 2024-064

기 획 각시중(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발행일 2024년 12월 18일

발행인 교육부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발행처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주 소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문 의 Tel.(042) 350-6223 Fax.(042) 350-8660 <http://giftedup.org>

인쇄처 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즈 (042)544-7288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 및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